

- (1)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 (2)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 (3)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맘으로 탄식 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 (4)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 (후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 (1)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 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 (2) 그 불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 (3) 내 주린 영혼 만나로써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 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 (후렴)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 담당

9/14(화)	9/15(수)	9/16(목)	9/17(금)	9/18(토)	9/20(월)
전재우 집사	안국현 집사	이찬희1 집사	문석영 집사	황재광 집사	추석연휴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신기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407장 다 같 이

기 도 최원오 집사

성 경 봉 독 민수기 9:17-23 인 도 자

설 교 『 주님과 함께 머무름 』 이신기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246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 민수기 9장 17~23절 >

17)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8)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19)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1)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22)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3)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1년 9월 13일 (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걸음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함께 동행 하시며 인도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걷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 놓여있는 이 나라를 긍휼이 여겨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안타까운 뉴스들을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것을 더욱 움켜쥐기 보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 받아 이웃을 돌아보고 베푸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나라의 중대한 일들을 잘 결정하게 하옵소서.

새문안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새문안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준비된 하반기 사역과 교육 일정에도 함께 하셔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과 교육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맡겨주신 복음전파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기화되는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새문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